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손 계 립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



1. 북한 성인교육의 목적과 특성

북한의 성인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로서 지난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성인교육 기관으로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부설형이 있으며,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송통신형이 있다. 또한 정치 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

1.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2.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 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3. 김일성종합대학과 북한의 권력 엘리트 양성
4.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과 김책공업종합대학
5. 북한의 교원양성제도와 고등교육
6.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기관도 있다.

북한에서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이 발전한 배경은 북한 교육의 이념적인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북한 교육의 이념적인 특성인 교육과 생산의 결합, 현장 학습의 강조, 정치사상 교양의 원리를 성인교육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교육은 산업 현장의 인력 양성, 주민들의 교육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노동자 계층과 인텔리 계층 간의 차별을 줄이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의 인식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셋째는 현장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성인교육의 목적은 북한 사회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교육과 노동의 결합,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성인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북한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학교교육은 생산노동과 결합하여 실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의무노동을 제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등교육까지는 교육을 중심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데 비해서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은 노동을 중심으로 학습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 노동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학습과 실습을 동시에 겸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다 빨리 양성한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성인교육은 주민들의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기도 한다. 김일성은 1982년 문헌¹⁾을 통하여 '전민 고등교육화'의 목적으로서 '인간개조' 사업을 중요하게 제시함으로써 성인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양에 관한 교과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체 부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현직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대학에서도 정치사상 교양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방송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성인교육에서도 정치사상 교양의 비중은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인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정치 간부를 양성하는 성인교육 기관은 정치사상 교양의 비중이 다른 교육 기관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성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실현한다는 정책도 북한 성인교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도 우리와 비슷하게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다. 북한에서도 당 간부로 출세하려면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인교육의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기관 중에서 산업체 부설 형태와 방송통신 형태의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김동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 놓으신 전민 고등교육화에 관한 독창적 리론』, 교육도서출판사, 1982.

2. 북한 성인교육의 발전 과정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서 인간의 정치교양을 함양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그 일환으로 사회교육,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주인인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은 인민교육 사업과 민족간부 양성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며, 교육사업의 결과로서 '전 인민의 인텔리화', '인텔리 대군의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수평적 통합성, 즉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의 통합적 관계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사회교육은 교육의 수직적 통합성,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지속적인 교육을 주요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라는 사회주의 교육방법론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 보고 그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

육 발전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문맹퇴치교육 시기, 중등기술교육 시기,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시기로 구분하였다.²⁾

첫째, 문맹퇴치교육 시기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성인교육의 중심을 한글보급과 문맹퇴치에 주력하였던 시기이다. 해방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식 교육잔재의 해소와 새로운 교육제도의 수립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사업으로서 문맹퇴치를 중시하였다. 해방 당시의 높은 문맹률을 고려할 때, 문맹퇴치 사업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민의 기초교육으로서 문자교육, 의무교육, 실업교육을 중시하였다. 1948년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에서는 ① 교육기회의 확충, ② 초등의무교육의 실시(1950), ③ 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의 진흥, ④ 직장에서의 기술 훈련 강화, ⑤ 문맹퇴치와 성인교육의 발전 등 5개 사업이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문맹퇴치 사업과 성인교육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당시의 학제를 보면, 성인교육 체제에서 인민학교 단계의 국어학교(4개월 과정), 성인학교(2년), 초급중학교와 초급기술학교 단계의 성인중학교(3년) 등 세 종류의 성인교육 기관이 제시되고 있다.

직장 성인을 대상으로 공장대학을 최초로 설립한 시기는 북한의 문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1951~1952년이라고

2) 최운실은 문맹퇴치적 사회교육 도입기, 산학연계형 사회교육 강화기, 고등교육 단계의 계속교육형 사회교육 발전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 울유문화사, 1990, 322쪽.

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256쪽.

4) 리병모 외, 『사회주의 교육학』, 김형직 사범대학, 1988, 363쪽.

할 수 있다.⁴⁾ 북한은 6·25 전쟁 시기에 기술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장대학을 설립하였다. 김일성은 1951년 초에 평남 성천군에 있는 군수공장을 방문한 후 6월 15일에 공장 야간 전문학교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공장대학을 설립하도록 하였다.⁵⁾ 그러나 이 시기의 공장대학은 정규적인 제도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교육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초의 설립은 1951~1952년이고 공장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등 기술교육 시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196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당시에는 전후 경제복구건설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라는 구호 아래 근로자 교육과 기술교육이 강조되었다.

전쟁 후 북한의 성인교육 체계를 보면 인민학교 단계에서 성인학교(2년)가 설치되었으며, 초급중학 단계에서 성인중학교(3년), 고급중학교 및 전문학교 단계에서 노동학원(3년), 영예군인학교(1~2년)가 설치되어 있다. 노동학원은 노동자와 빈농 출신의 우수한 청년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대학 내에 설치한 것으로, 평양공업대학, 홍남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 등에 노동학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전문학교와 초급중학교에는 근로청년들을 위해서 야간학교 과정을 각각 설치하였다. 근로자 중학교 과정에는 통신과정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1960년에 개편된 학제에서는 종전의 고

급중학교를 폐지하고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하였으며, 기술학교에는 야간과정도 설치하였다. 또한 전문학교를 폐지하고 고등기술학교를 두었으며, 여기에 야간 및 통신과정도 설치하였다. 전쟁 후 '60년대의 북한 성인교육은 경제복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성인교육을 통하여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다. 특히 중등교육 단계의 교육에서 초급 기술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각종 기술교육 기관을 설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북한의 성인교육은 산업과 교육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이 시기에 고등교육 단계인 공장대학도 교육제도상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1960년 10월에 김일성은 기술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대학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64년 4월 북한 당국은 '고등교육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채택하여 공장대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획을 재천명하였다. 이 방침에서 공장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⁶⁾

셋째,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시기는 1970년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중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이 발전하였으며, 1980년부터는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 인민의 인텔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5) 정성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텔리 대군의 양성』, 사회과학출판사, 1984, 77~79쪽.

6) 강근조, 『조선교육사 4』, 사회과학출판사, 1991, 308쪽.

의 특징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공장대학교와 고등전문학교와 같은 성인교육 기관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1970년 당 5차대회에서 ‘3대 기술혁명’의 추진을 결정하였는데, 이 3대 혁명의 추진은 기술교육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교육부문의 최대과업을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텔리 대군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기술교육의 강화와 고등교육의 개선이 강조되었다. 1971년의 북한 학제를 보면, 인민학교 단계의 근로자 학교, 중학교 단계의 근로자 중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야간 및 통신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단계에서 공장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종전 학제에 있던 야간 및 통신고등기술학교가 남아 있다.

1972년의 학제에서는 새로운 학제의 수립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성인교육 체계가 수립되었다. 여기에서는 인민학교 단계의 근로자 학교가 폐지되고, 고등중학교 중등반 단계에서 근로자 중학교만 존속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단계에서 야간 및 통신학부와 공장 고등전문학교가 신설되었으며, 대학 단계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은 19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강화 조항을 명시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각도 확대 전 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이 가운데에

는 ① 고등의무교육의 점진적 실시, ② 농장대학의 신설, ③ 고등교육 체계 정비와 전 인민 인텔리화 추진, ④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강화, ⑤ 일반 기초지식과 기술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성인 및 고등교육의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1980년에 김일성은 당 6차대회의 보고를 통해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할 것과 ‘공산주의 혁명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을 신설하고 TV방송대학을 신설하기도 하였다.⁷⁾ 이어서 1980년대에는 매년 공장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단계의 성인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성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로동신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온 사회의 인텔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 졸업 정도의 높은 지식수준과 문화적 소양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사업”⁸⁾이라고 하여 북한의 성인교육을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인민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을 확대함으로써 1992년에는 160만의 지식인 대군을 양성하였으며⁹⁾, 1994년에는 전국적으로 170만의 지식인을 양성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인 대군의 양성은 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현재 북한에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전문학교가 24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부하는 근로자 학생들은 수만 명인 것으로 알

7) 리영환, 『조선교육사 6』,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7쪽.

8) 『로동신문』 논설, “온 사회의 인텔리화는 문화혁명 수행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 1992. 5.17일자.

9) 최명희, “우리나라는 배움의 나라”, 『조선사회민주당』, 1994년 4월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40쪽.

려지고 있다.¹⁰⁾

3. 산업체 부설형 성인교육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공부하는 성인교육 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는, 이러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자기 초소, 즉 직장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인교육의 성공적 실현을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1) 중등교육 단계의 산업체 부설 교육기관

일하면서 배우는 산업체 부설형 성인교육 기관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근로자 고등중학교가 있으며,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이 있다. 인민학교 단계의 근로자 학교가 이전에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2년의 학제에서는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는 2년제로서 1958년 최초로 농촌 및 주요 생산공장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이나 협동 농장,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는 이들 근로자 학교나 근로자 중학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공산주의 교양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영농 기

술이나 농민생활의 특징 및 공장 노동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 기술 및 생활규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사진은 공장이나 협동 농장에 소속해 있는 당 간부, 사회단체의 간부, 협동 농장의 간부가 각급 근로자 학교의 개별적인 반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1990년에 이르러서는 중등교육의 확대와 근로자들의 학력 수준이 상승하여 중등단계의 성인교육 기관인 근로자 고등학교가 폐지되었다. 이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교육위원회는 전국적 범위에서 근로자 고등학교 대상들에 대한 교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 장악한 데 기초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 속에서 고등중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기본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고등학교 체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¹¹⁾

2)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 기관으로서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 성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공장대학을 더 늘리고 공장대학의 교수 사업을 개선하며, 농촌 지역들에는 농장대학을 설립하여 농촌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장대학은 공장과 기업소, 농장과 어장

10)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2, 209쪽.

11) 『조선중앙년감』, 1991, 187쪽.

등에 병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장 자체가 학습과 실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론 수업은 별도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습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진다.

공장대학의 학장은 공장 지배인이 겸임하고 교원은 대부분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사, 전문가들이 맡고 있다. 외부의 정규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강의를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이론학습을 맡거나 자체의 기업소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순회 지도를 담당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공장 직원 또는 인근 지역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대학의 규모도 결정된다. 대체로 1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대학의 수업연한은 5~6년이고 졸업 후에는 정규대학 졸업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어 기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공장대학 안에 1년제의 예비과를 설치하여 이 예비과를 거쳐서 공장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또한 공장대학은 근로자들이 강의를 받기에 용이하도록 주간이나 야간 시간을 이용한다. 보통 근로 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오후 4시부터 하루 3시간씩 주당 18시간의 강의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는 공산주의 산업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고등교육의 문호를 개방하여 그들의 사회적 계급 상승 이동 기대에 부응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도 노동과 학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공장대학에 입학하려면 공장 고등전문학교나 정규의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장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노동자만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태도를 통제하는 간접적 효과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한편, 농장대학은 1981년 12월 청산농업대학을 개교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¹²⁾ 농장대학은 1년제의 예비과, 4.5~5년제의 본과로서 농학과와 농기계학과를 두고 있다. 수업 방법은 영농 기간을 고려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주간대학과 같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농번기인 3~6월과 10~11월에는 학습 과제를 주어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한 7~9월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1~2 과목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장대학의 재정 관리와 운영 사업은 농업위원회가 관장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 지도는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장대학의 학장은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이 맡고, 경리부학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교무부학장은 전임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어장대학으로는 1979년 대규모 수산기지인 함남 신포시에 최초로 신포수산대학이 설립되었다. 신포수산대학은 어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대학이다.

이러한 공장대학과 농장대학의 수와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1961년에 공

12) 리영환, 앞의 책, 105쪽.

장, 기업소, 농목장에 24개의 공장대학이 있었는데, 1983년에는 공장대학의 수만도 77개로서 전체 대학수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후 공장대학의 증가 상황¹³⁾을 보면, 1983년 5개교, 1984년 7개교, 1985년 2개교, 1988년 공장 및 농장대학 5개교, 1990년에 이르러서는 100여 개의 공장대학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4.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성인교육

북한은 1948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야간대학과 통신사범대학을 설치하였다. 이어 1948년에 3개의 야간대학과 4개의 통신대학을 설치하였다.¹⁴⁾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해방 직후 기존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고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려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정규대학을 신설하는 동시에 야간통신 과정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야간학부와 통신학부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평양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급 대학에는 모두 야간통신학부가 없으며, 지방 대학에 주로 야간통신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의 통신학부는 통신 매체를 활용하면서 출석 수업을 통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통신학부는 라디오 등의 통신 매

체를 주로 이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야학식 학습반 운영, 출석 수업, 일요학습반 운영¹⁵⁾ 등 학생들이 출석 가능한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통신학부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다. 1년의 수업 기간 중에서 10개월은 통신 수단을 통해 교육을 받고 2개월은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과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때 농민들은 농한기 중에 출석 수업을 받고, 그 이외의 직장인들은 야간학습반, 일요학습반의 형태로 출석 수업을 대체하기도 한다. 통신학부에 재학하는 직장인들은 통신교육에 따른 제반 편의를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통신교육을 받으려면 당의 추천이 있는 자라야 하며, 연 2회 및 1회에 1개월씩 등교 수업을 하는 이외에 통신교육 담당 교원이 직접 현지에 파견되어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은 유급 휴가를 받게 되고, 교육비와 여비도 해당 직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교육 단계의 통신교육은 2개의 통신대학, 즉 김일성 방송통신대학과 텔레비전 방송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 방송대학¹⁶⁾은 1973년 4월 15일 김일성의 61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이 창설되었다. 강의 내용 및 시간은 총 6개 과목 1,260회분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강의 내용은 김일성 혁명 역사(교육 횟수 300회), 김일성 노작 연구(300회), 김일성 혁명 전통(150회), 노동당 정책사(170회), 정치경제학(170회), 철학(170회) 등으로 모두가

13) 『조선중앙년감』, 1984년, 1985년, 1986년, 1989년, 1991년도의 교육부문 기술에서 발췌하였음.

14) 『조선교육사 3』, 사회과학출판사, 1990, 205쪽.

15) 안중현, 『통신교육의 조직 형태와 방법』, 교육도서출판사, 1983.

16) 북한연구소, 앞의 책, 1335쪽.

정치 교양 사상 강좌임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대학은 1982년 9월 1일 개교하여 첫 강의를 시작하였다.¹⁷⁾ 이 대학의 교육 내용은 김일성 방송대학과는 달리 수학, 물리학, 외국어 등 고급 수준의 순수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별로 5~20명씩 '학습반'을 조직하여, 구내에 마련된 수상기 설치 강의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대학의 강좌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서 7시까지 90분간으로 주 3회이다.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성인교육의 최근 상황을 보면, 1984년에는 텔레비전 방송대학 수강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37개 대학에 강의 시청장을 설치하였으며,¹⁸⁾ 1985년에는 TV 방송대학의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시청률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⁹⁾ 또한 1989년에는 황해남도 배천군 금산협동농장의 117쌍의 부부가 통신교육망을 통해 학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 1990년에도 협동농장 농장원 34명이 함흥농업대학의 통신현지학습반을 졸업하여 농학기사 자격을 받았으며, 이 농장에서는 관리일꾼의 100%, 청년작업반원의 50%가 기사, 준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¹⁾ ▲

한만길/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통일교육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손계림/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교육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유학하였으며, 현재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후 한국교육 연구』,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 외 다수가 있다.

17) 리영환, 앞의 책, 1995, 106쪽.

18) 『조선중앙년감』, 1985, 237쪽.

19) 『조선중앙년감』, 1986, 221쪽.

20) 『조선중앙년감』, 1990, 165쪽.

21) 『조선중앙년감』, 1991, 187쪽.